주간인물
weekly people.co.kr

대한민국 '화장실 문화' 선진화의 주역(主役) 정숭열 회장을 만나다

정숭열 現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장학재단 위원장
現 대한민국화장실협회 명예회장
現 한누리포럼 회장

창간25주년
No.987
2016. 5. 21
SEOUL
국내최초 인물시사주간지

대한민국 '화장실 문화' 선진화의 주역(主役)
정숭열 회장을 만나다

정숭열 現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장학재단 위원장
現 대한민국화장실협회 명예회장 I 現 한누리포럼 회장

주요 학력 및 경력
現 한누리포럼 회장
現 516민족상 부이사장
現 대한민국화장실협회 명예회장
現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장학재단 위원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주)중앙고속버스 사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육군부회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무총장
육군 군수사령관/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보병 제32 사단장
건국대 명예경영학박사/국방대학원/육군사관학교 졸업(육사15기)

상훈

1967.04	화랑무공훈장
1977.10	보국훈장 삼일장
1981.10	보국훈장 천수장
1988.10	보국훈장 국선장
2011.06	516 민족상
2016.04	아름다운 육사인 상
대통령 표창(2회)	

정숭열 회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육군 군수사령관,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보병 제32 사단장을 지내며 35년 동안 나라 수호(守護)를 위해 봉사를 해오다 1998년, 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초의 한국도로공사 '공채' 사장으로 선임이 되며 그 시작부터 주목을 받았다. 정 회장은 한국도로공사에 재직 당시, '대한민국 화장실 문화 선진화'를 위해 남다른 추진력과 뚝심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이끈 장본인이다. 불과 3년 만에 전국의 지저분한 화장실을 쾌적한 공간으로 변화시키며 '세계의 주목을 받는' 선진화된 대한민국 화장실 문화를 이끈 숨은 주역, 정숭열 회장을 조명해보자. _손지아 기자

한 사람의 신념과 추진력으로 "대한민국의 화장실이 달라졌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는 국민들이 월드컵 축제를 즐기며 열정으로 하나가 된 모습이 해외의 주목을 받는 해이기도 했지만 쾌적한 '화장실 문화'로 외국 손님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의 화장실을 선보일 수 있었던 해이기도 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라는 나라의 축제를 앞두고 전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 쾌적한 화장실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었던 시발점은 바로 정숭열 회장의 '화장실문화 바로세우기 운동'이다. "군에 몸담고 있을 때부터 고속도로 휴게소가 왜 그렇게 불친절하고 불결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998년 당시, 하루에 300만대의 차량과 800만 명의 고객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비싼 가격과 불친절한 서비스가 당연시 되어 있었기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서 작심을 하고 휴게소 운영혁신을 감행했습니다." 정 회장의 '휴게소 운영혁신'은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들을 위한 '합리적 가격'의 상품 판매와 '쾌적한 화장실 문화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금전적 이해와 직결된 혁신 운동이었기에 휴게소 운영업자들의 반발에 부딪혔지만 정 회장은 '휴게소 운영혁신'에 동참한 정도에 따라 5년 후 재계약 평가에 반영 될 것이라는 선언을 하며 과감히 혁신 운동을 이끌어 나갔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작한 휴게소의 변화는 금세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그림이 걸려 있고 향기가 나며 세미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휴게소 화장실'은 세간의 화제가 됐다. 언론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화장실 혁신운동'은 가속도가 붙어 전국의 '공용 화장실 혁신운동'으로 그 범위가 확대 되며 우리사회의 한 단면을 짧은 시간 안에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행정당국의 지시도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주도한 캠페인의 결과도 아닌 한국의 대표적 공기업이 발제한 '화장실 혁신운동'이 역대 어느 캠페인이나 의식개혁운동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의 변화가 주목을 받으며 관공서 민원실의 화장실부터 변화하기 시작했고 병원, 터미널, 공원, 학교, 군부대 등의 모든 공용시설 화장실이 변화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것이지요. 짧은 시간의 획기적 변화로 세계 각국에서 우리의 화장실 문화를 배우기 위해 연수를 오기도 합니다. 2007년 11월 UN산하 세계화장실협회 본부가 대한민국에 창설되며 우리나라 화장실문화가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운영혁신인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은 당시의 중앙 언론 7개사의 '올해의 히트상품'으로 선정됐으며 뉴욕타임즈와 중국의 CCTV 등 국제 언론사들이 한국의 화장실 문화 혁명을 집중 보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이 제고됐다. 정 회장은 최근 '화장실을 새로운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녹색화장실 문화비전을 제시하는 등 화장실문화 정착에 크게 공헌한 공로'로 건국대 명예경영학 박사학위, 제4회 516민족상 사회교육부문상, 아름다운 육사인 상(2016년 4월29일)을 수상했다.

516 민족상 수상

화장실 선진화·세계화 선포식

맡은 조직을 챙기고 보호하며 본질을 꿰뚫는 혁신적인 마음과 추진력, '재향군인회' 지원활동으로 그 맥을 이어가다

정 회장은 최초의 한국도로공사 '공채'사장으로서 공기업의 '낙하산'시비를 불식시키며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과 공사 발주, 입찰 등의 핵심 업무를 투명화 했으며 업자들 간의 담합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을 제거하며 1999년 한국도로공사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기업부문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겼다. 이에 정 회장은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실하게 대하며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노사불이(勞使不二)이지만 굳이 勞와 使를 따진다면 사장인 본인이 勞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한국도로공사에 재직하며 주유소와 톨게이트의

민영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기존 90cm에서 127cm로 중앙분리대 개량, 표지판의 문자 확대, 원활한 소통을 위한 Hi-Pass를 판교, 성남, 청계 등에 시범도입하며 '혁신'과 '추진'이라는 그의 행보를 과감히 걸었다. "2000년, 한 도시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문제를 놓고 시민단체 주관으로 인터넷 여론조사가 실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투자금 회수를 위한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하지만, 시민단체측은 통행료 납부 거부운동을 시작했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통행료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일 것으로 예상됐죠. 이에 도로공사 직원들이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응답으로 여론조사에 참여해 예상과 반대되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시민 단체측과 언론은 '도로공사가 직원들을 동원해 여론을 호도했다'며 문제 제기를 했고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며 일부의원들이 '인터넷 폭력을 휘두른 직원을 색출해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정감사 당시 정 회장은 직원들이 애사심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결코 인터넷 폭력이 아니며 "처벌을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응수했다. "결과만 따진다면 잘한 일이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직원들의 애사심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정 회장이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서 이루었던 또 하나의 업적은 대한민국 향군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신탄진휴게소와 인삼랜드휴게소를 재향군인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현재까지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일이다.

한누리포럼의 태동

'한누리포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장학재단' 활동으로 또 다른 혁신을 꿈꾸며...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힘을 보태고파

정 회장은 한누리포럼 회장직을 200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맡아 전국적으로 지역본부를 창립·확대하며 현재 10만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단체로 성장시켰다. 경제민주화계획안, 식품안전 정책공약, 조리프로젝트 대선공약,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방문 및 초청, 전국 실버대학설립 대선공약 등을 제안했고 현재도 정기 이사회 및 월례회를 하며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열정을 다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도록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장학재단 위원장으로서도 활발한 미래 인재 양성 및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고속도로 휴게소 뿐만 아니라 관공서 민원실, 병원, 터미널, 공원, 학교 등의 화장실에서 더 이상 불쾌함을 경험하지 않는다. 정 회장의 혁신적 마음과 추진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우리의 '쾌적한 화장실 문화'이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좌우명을 항상 마음에 두고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고 전하는 정 회장은 현재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장학재단, 대한민국화장실협회, 한누리포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며 또 다른 혁신을 꿈꾸고 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함'이 있었기에 전국의 공공장소를 넘어 가정까지 화장실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전하는 정 회장이 우리나라의 화장실 문화의 대대적 변화를 이끈 저력으로 향후 그가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의 혁신과 최선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힘을 보탤 것이라 확신하며 그의 행보를 응원하다. WP

정숭열 회장과 한민구 합참의장